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참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에 즐겨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시리즈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심 속에서 참된 자녀들을 얻어 오셨으며,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와 같이 기대하시며 바라보신다.

생각의 길을 바꾸자!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와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영적 훈련과 더불어서 불같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영적인 뜻을 알고 행해야 응답과 축복

성령의 감동함 속에 기록된 성경 66권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아 올바르게 알고 행할 때 응답받아 영광 돌린 국내외 성도들의 간증.

만민뉴스

제986호 2023년 2월 5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은 · 사 · 집 · 회 · 간 · 증

담석이 사라지고 빈혈, 척추 뒤틀림 치료받아

박영남 권사 (63세, 2대대 12교구)

2022년 11월 12일 (토) 홍시 하나를 먹은 후, 배가 약간 당기고 불편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어지럼증과 통증이 있었는데 증상이 점점 심해져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지요.



를 먹어야 한다.”고 당부하였지요.

그날 밤 11시, GCN 방송을 통해 저는 집에서 은사 집회로 드려진 금요일야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응

11월 15일(화) 병원 검진 결과는 ‘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내시경 시술로 담석을 제거하기로 하고, 교구장님에게 전화해 제 상황을 말씀드린 후 전화로 권능의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받았지요.

답의 하나님> 설교 말씀을 들으며 그동안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들이 떠올라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는 위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 믿음으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뒤틀렸던 척추에서 “다다닥!” 큰 소리가 나더니 뼈가 맞춰졌고, 다리의 부기가 점점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11월 16일(수) 시술 당일인데 통증이 없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재검사 후 “시술하지 않았는데도 담석이 사라졌고, 패혈증이 췌장에서 심장까지 왔지만 머리로는 안 올라왔다.”고 말했지요. 저는 담석이 사라졌다는 말에 성령의 역사에 감사드렸습니다.

이후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을 때 몸이 가뻐해지더니 빈혈 증상이 사라졌고, 휠체어 없이도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병원에서는 그날부터 패혈증의 근본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밤새 6~7차례 엄청난 양의 하혈을 하자 목요일에는 원인을 찾고자 ‘위내시경 검사’를 하였습니다.

12월 12일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에 갔는데, 담당 의사는 짧은 시간에 건강해진 제 모습을 보며 매우 놀라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수혈받지 않았는데도 빈혈 증세가 사라지고 건강상태가 너무 좋아졌다며 어떻게 된 건지 말해 줄 수 있냐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급성으로 위에 천공이 생긴 ‘위 과다 출혈’이었습니다. 시술받아 출혈은 멎었지만, 검사와 치료 과정에서 척추 뒤틀림과 이에 따라 다리도 많이 부은 데다 심한 빈혈까지 겹쳐서 저 혼자서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는데 목사님 기도를 받을 때 척추에서 “다다닥!” 큰 소리가 나더니 뒤틀렸던 척추가 정상 이 되고 빈혈 증상도 사라졌습니다.”라고 답변하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저는 은사 집회 당일인 11월 25일 (금), 믿음으로 치료받자 남편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퇴원하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골수까지 피가 채워지려면 7개월이 걸리니 매일 고기

이처럼 빠른 속도로 담석과 빈혈, 척추 뒤틀림 등을 치료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을 깨달으면

혹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혹 징계가 올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말씀을 어기면 잔뜩 주눅이 듭니다. 만일 자신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그 행위 자체에 집착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루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참된 평안을 누리길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에 즐겨 순종합니다.

이재록 목사의 신앙 칼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딤후 1:14)



당회장 이재록 목사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4~7)

우리가 '오래 참는다'라고 하면 많은 시간을 지루하게 기다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것은 결코 힘들거나 지루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상대를 위해 오래 참는 것도 즐겁고, 기다림의 시간이 길었던 만큼 그동안 느낀 그리움과 아픔이 오히려 더욱 진한 사랑으로 승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인생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 줍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해 천 년을 하루 같이 여기시며 경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인 사랑

사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곧 영적인 사랑과 육적인 사랑입니다.

영적인 사랑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으로, 상대의 유익을 구하고 변치 않으며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참된 사랑입니다. 반대로 육적인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며 변질하는 사랑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 4~7절에는 영적인 사랑에 대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정의 몇 가지만 살펴봐도 자신에게 얼마나 사랑이 있는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얼마나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측정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

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만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가 되는 것이지요.

영적인 사랑을 이룬 정도를 1%에서 100%까지 나눈다면 우리가 100%가 돼야 온전한 하나님 사랑의 차원에 이르렀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1% 지키면 1% 만큼, 50% 지키면 50%만큼 영적인 사랑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인 사랑을 이룬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도 다르며 권능 또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요 14:21).

2. 영적인 사랑의 기초가 되는 오래 참음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영적인 사랑의 정의에 오래 참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인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래 참음이 부족해 10%쯤 이루고 더 이상 진전이 없다면 그 이상의 차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10% 이룬 만큼 하나님 앞에 사랑과 은총을 입게 되지만 나머지 90%는 원수 마귀 어둠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피조물의 입장에서 오래 참음인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오래 참음이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음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참음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참음 곧 하나님 안에서의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참음이란 무엇일까요? 가령 화가 날 일이 생겼을 때 억지로 화를 누르며 참는 것을 말하지요. 어떤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며 꾀꾀 앓기도 하고, 입을 꼭 다물어버리기도 하며, 괴로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오래 참으라고 했으니 힘들지만, 꼭 참아야지.’ 하면서 의무적으로 참아 내기도 하지요. 이러한 참음은 모두 악 속에서 참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계에 이르러 폭발해 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반면 영적인 참음은 선으로 참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선과 진리 가운데 참고 참아서 악을 빼내 버리면 모든 것이 이해되고 용서되므로 참을 일이 없어지지요.

하나님께서서는 악이 전혀 없으시므로 모든 것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용서하시니 참을 일 자체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육을 입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오래 참으신다고 표현한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첫 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 경작의 역사도 오늘날까지 지속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3. 오래 참음으로 인간을 경작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6장 5~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최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셔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을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긍휼함이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세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친히 인도하시며 그의 후손들을 통해 다시금 인간 경작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최악이 관영할지라도 다시 길을 여시며 선으로 변화되기까지 기다리셨으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증한 우상을 섬길지라도 다시금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나타내 보이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연단 하여 참 자녀를 얻으시기까지 영적인 오래 참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심 속에서 많은 열매, 곧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된 자녀들을 얻으실 수 있었으며 지금도 모든 사람을 그와 같이 기대하시며 바라보고 계십니다. 창세 이래 지금까지 이 땅에서 경작 받고 천국에 이른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했는지에 따라 영원한 천국의 처소와 상급으로 갚아 주십니다.

4. 사도 바울을 통해 본 하나님의 오래 참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옥에 가두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습니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교회
대표전화 02) 818-7000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 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 및 관련 문의: 02-818-7236

이재록 목사의 부흥성회 설교집

URIM BOOKS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

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로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롬 9:3) 고백하며 동족의 구원을 위해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사랑에 가깝게 이르렀는지 알 수 있지요. 이러한 사랑의 차원에 이를 뿐 아니라 이방인 선교에 앞장서며 무수한 영혼을 구원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오래 참으심으로 사도 바울을 기대하며 기다리셨을까요?

주님께 부름을 받기 전, 그는 매우 훌륭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지요. 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교법사인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고 자라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율법적인 자기 의는 하나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지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많은 연단의 시간을 거치며 자기 의와 지식이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하나님 뜻을 이뤄 가셨지요.

사도 바울은 권능 받아 큰일들을 이뤄가면서 육에 갇히기도 여러 번 했으며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는 등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모든 연단을 인내로써 이겨냈지요. 그는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으며 그 뜻에 가까이 순복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를 마음껏 다듬으실 수 있었지요. 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마지막까지도 온전히 죽어지는 것, 곧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 고백하며 기쁨으로 순종했지요.

이를 통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맞춰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많은 일을 했을지라도 자신을 무익한 종으로 여기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고전 15:10). 오래 참으심의 결과로 얻어진 사도 바울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기쁘셨을 것입니다.

5. 영적인 오래 참음을 이루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차원에 들어가기 위해, 또한 사랑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오래 참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씀한 대로 소망 중에 모든 것을 믿으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되어 오래 참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앞서 4절 전반 절에 나오는 오래 참음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오래 참음은 내가 사랑을 베푸는 데도 돌을 던지는 사람에 대한 오래 참음, 또한 내게 오는 시련과 다툼은 모든 일에 대한 오래 참음, 즉 개인적인 입장에서 오래 참음을 말합니다.

반면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의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나와 있는 진리의 말씀과 위배되는 것, 다시 말해 사랑에 위배되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것을 말하지요. 그런데 모든 것을 참음에 있어서 모든 것을 믿어 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 소망을 이루고 소망 안에서 사랑을 나누게 되니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사랑일까요? 믿음 자체가 곧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그의 모든 것을 믿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랑 없이는 불가능하며, 사랑으로 상대를 믿어 줄 때 또한 모든 것을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기대하시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 신속히 모든 비진리와 악의 모양을 벗어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 사랑의 차원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사랑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픔도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을 잘 견뎌므로 영적인 사랑의 첫 관문인 오래 참음을 멋있게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참으므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뤄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획특집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길, **생각의 길을 바꾸려면?**

우리가 늘 해오던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영적인 답은 찾을 수 없습니다.

육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육신의 생각이라는 물줄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의 문을 차단하고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훈련과 더불어 불같은 기도를 할 때 응답과 축복!!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쁘고 감사하는 것이 응답과 축복의 길**”

주 안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변화될 자신과 이후에 받게 될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령, 누군가가 배신했다면 고통받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며 영적인 사랑을 사모하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면 이를 통해 더 성숙해져 무엇이든지 포용하는 넉넉한 마음이 될 것을 바라보아야 하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열심히 함께하는 일꾼이 없다면 오히려 이것을 기회 삼아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음의 성결을 이루가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악으로 인해 상심하고 낙망 될 때도 연단을 통해 더 신속히 변화될 자신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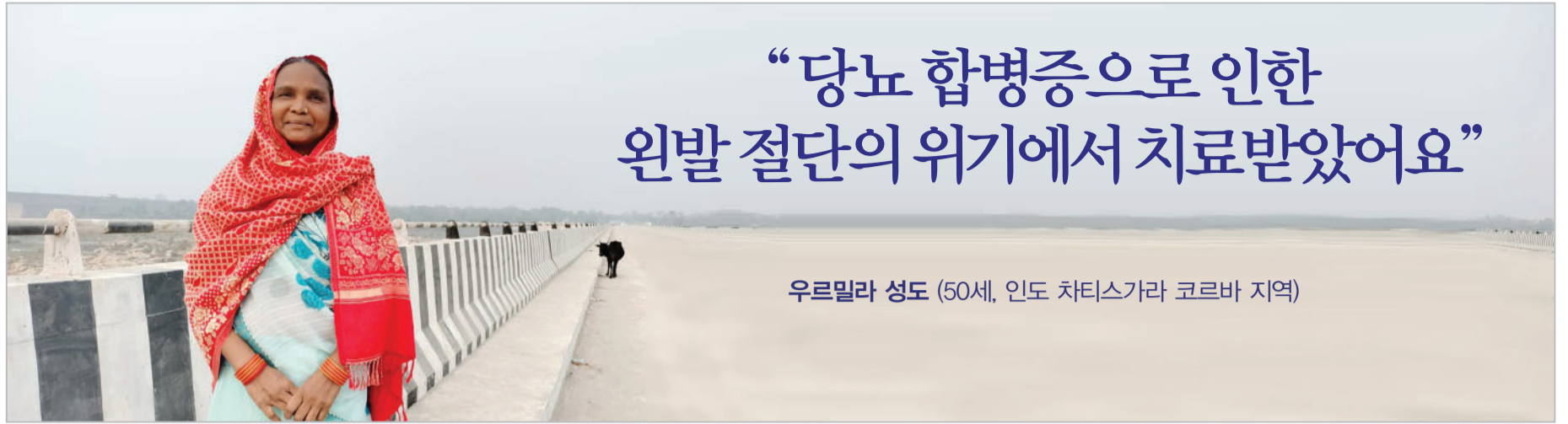
이처럼 모든 상황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 믿음으로 바라보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믿고 행하는 모든 것 위에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십니다.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훈련과 더불어 불같은 기도를 해야**”

생각은 하나의 습관이므로 어떤 것을 보면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활달한 사람을 보는 순간 ‘까분다.’라는 생각이 스친다면 이는 평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느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자주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장점을 바라보지 못해 더 다가가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육신의 생각들로 인해 만들어진 그 길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의 문을 차단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놔두고 그 주변을 문으로 차단한 상황을 연상하며, 비진리의 생각이 오면 차단하고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이제 한 번만 그 문을 차단해도 더 이상 생각이 밀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와 더불어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훈련을 했기에 육신의 생각으로 난 길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지요. 이러한 노력과 함께 불같은 기도를 할 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왼발 절단의 위기에서 치료받았어요”

우르밀라 성도 (50세, 인도 차티스가라 코르바 지역)

2022년 10월 초, 왼발에 원인 모를 종기가 생겼습니다. 이후 서서히 커지면서 발과 다리에 열이 나고 통증이 있더니 결국 고름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환부가 전혀 나아지지 않아 병원에 갔더니 당뇨 수치가 400 이상이고 합병증으로 발의 상처가 계속 커지고 있어서 왼발을 절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20년 전부터 당뇨병과 고혈당을 앓아왔기에 상처 하나가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왼발을 절단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으니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왼발이 잘리면 어떻게 걷고 아이들을 돌보며 일상생활을 할지 너무나 불안하고 초조했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극심한 왼 다리 통증으로 20일 동안 거의

먹지를 못했지요.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유튜브에서 환자를 위한 기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GCNTV HINDI 채널 '이재록 박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발견했지요. 저는 채널 운영자인 텔리만민교회에 제 질병 치료를 위한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텔리만민교회 일꾼들은 제게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도' 말씀을 듣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알려 주었지요. 그리고 GCNTV HINDI를 통해 11월에 한국 만민중앙교회에서 열리는 은사 집회에 참석해 기도 받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도 전해 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마음에 치료 받을 수 있다는 소망으로 몸이 아주 힘들고 불편했지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하나 실행해 갔습니다. 또 치료받을 수 있다는 소망은 저를 더욱 간절하게 하여 아픔을 이겨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십자가의 도' 말씀을 듣던 중 우상 숭배가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8년 전부터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였지만 이러한 사실을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즉시 우상숭배를 중단하고 그동안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11월 25일, GCNTV HINDI를 통해 참석한 은사 집회에서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습다. 그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느꼈고, 제 몸에서는 땀이 흘렀지요. 실시간으로 접수된 국내외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며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뒤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심일조를 드렸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며 발견되는 죄들은 바로바로 회개하였지요. 또한 전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친척과 이웃들을 전도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마음이 평안했고, 왼발의 통증이 차츰 사라졌으며, 음식도 잘 먹을 수 있게 되었지요.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기도를 받으면 받을수록 제 발의 상처가 나아 마침내 왼발을 절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 삶 가운데 큰일을 행하신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25년 된 허리디스크를 치료받았습니다”

황선범 집사 (88세, 1대대 5교구)

저는 25년 동안 허리디스크로 고통받아왔습니다.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는 양쪽 고관절이 매우 시큰거려 조심하 내려와야 했지요.

2022년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은사 집회 때 꼭 치료받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에서 진행한 '당회장님 저서 읽기'에 적극 참여하며 하루에 성경 두 장씩 읽으면서 사모하므로 준비하였지요. 11월 은사 집회를 앞두고 열린 '작정 다니엘 철야'에도 참석해 간절히 기도할 때 일상생활 속에서 불평불만 하며 짜증 났던 제 모습이 떠올라 회개하였습니다.

그 뒤 11월 25일 금요일철야예배 때 은사 집회가 열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환자 기도를 받았는데, 신기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기도 받는 순간 오른쪽 허리 부분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 등을 타더니 온몸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자고 일어난 후 확인해 보니 과연 허리 통증이 완전히 사라져 허리를 굽히고 펴는 데 전혀 문제가 없고 자유자재로 허리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3일 후에는 계단을 내려갈 때 양쪽 고관절이 전혀 시큰거리지 않았지요. 할렐루야!

오랫동안 고통 받던 25년 된 허리디스크를 치료해 주신 응답과 축복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어방동1099-2 JJ빌딩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010-6425-8705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령천서로 57 광림빌딩 7층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3927-7526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6320-5984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4547-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영사면 향환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예천동 650-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장천동 팔마로11-5 3층 ☎061)745-1117, 010-6603-7266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청운로 129 향야빌딩 3층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망마로 10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층 ☎055)854-5816, 010-4849-1479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6772-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거룡2길 53-1 2층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330-31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9636-797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춘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